

축 사

불광 불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불광사 중창불사 완공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큰스님께서서는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보살로 불교의 현대화와 불교의 생활화, 대중포교에 앞장서신 선각자이셨습니다. 또한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단의 초석을 놓으시고, 다방면에 걸친 전법활동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불광사는 지난 82년 잠실벌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왕성한 전법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제행이 무상한 법이라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광사는 처음 전법의 초석을 놓던 그 마음을 한결 같이 간직하고 중창불사 완공이라는 큰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덕 큰스님의 큰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지홍 스님의 원력이 앞에서 끌고, 불광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이 뒤에서 밀어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창불사 원만성취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불광사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환희와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사는 오늘 이 성취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꺼지지 않는 전법의 횃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적 전법도량을 완성한 불광사는 오늘 뜻 깊은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종교공동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종단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불광사는 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고, 미래로 한 발 먼저 앞서갔습니다.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포럼 역시 한국불교, 나아가 한국 종교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할 주제입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한 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병폐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파괴, 도덕성의 해이, 소통의 부재와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세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역할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포럼에 대해 불교계는 물론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동체를 대표하여 참가해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한국 불교와 여러 종교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발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종단에서도 이번 포럼에서 발표될 내용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0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